

◆ Hana FX Issue

◆ 미-이란 충돌에 따른 시나리오별 외환시장 영향 점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단행

- '26.2.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합동 공습을 단행(Operation Epic Fury, Operation Genesis). 테헤란 도심을 포함하여 이란 내 핵심 군사 기지 등 주요 전략 거점들을 공격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정권 교체와 핵 위협의 완전한 제거임을 선언
- 이란은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본토와 바레인, 카타르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 (진실한 약속 4 작전)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이 4~5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향후 전개 방향은 불확실성 짙게 드리워진 상황으로 보임

<표 1> 이란 사태 관련 타임라인

구분	일자	구분
압박과 협상	'25.2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2.0' 캠페인 재개 선포
	'25.3.7	트럼프 대통령,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친서를 보내 새로운 핵 협상을 제안. 거부 시 심각한 군사적 결과를 경고하며 60일의 데드라인 설정
	'25.4.12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이란 간 제 1 차 간접 협상 시작
	'25.5	IAEA,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지난 3 개월간 50% 급증하여 핵무기 10 기 분량에 도달했다고 보고
공습	'25.6.13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 작전. 이란 내 나탄즈, 포르도 등 주요 핵 시설과 군사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공습
	'25.6.22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 작전. 미군 폭격기가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공격.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이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발표
	'25.6.23	이란의 보복 공격. 카타르 소재 미군 기지에 탄도 미사일 발사했으나 사전 통보로 인명 피해는 제한적
	'25.6.24	휴전 선언.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와 이란의 수용으로 약 12 일간의 전면전 위기 종료
경제적 고립	'25.8.28	유럽 3 개국(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근거로 '스냅백(Snapback)' 발동
	'25.9.27	UN 제재 공식 부활. '15 년 핵 합의로 해제되었던 모든 UN 차원의 경제·군사 제재가 자동 복원됨. 이란의 공식 석유 수출 통로가 사실상 봉쇄
	'25.12	이란 내부에서 물가 상승과 제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
외교전	'26.2.4	오만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재개
	'26.2.10	트럼프 행정부, 오만 중재 채널을 통해 이란에 2 월 말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약 2 주(10~15 일)의 데드라인을 구두로 통보
	'26.2.17	제네바에서 2 차 협상 진행.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5% 이하로 낮추겠다"는 제안을 내놓음
	'26.2.24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으나, 합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발언하며 타결을 압박

	'26.2.26	제네바 3 차 협상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란은 우라늄 농축 1.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으며 협상 타결 시 미국 기업들에 에너지·광물 개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그러나 미국은 3 대 핵심 핵 시설 폐쇄, 농축 우라늄 인도 등 최대치의 압박을 유지
--	----------	--

향후 예상 시나리오

- 금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4주간의 기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기간 미국의 지상군 투입은 배제된 상황에서 이란의 주요 거점 및 요인 제거를 통한 이란의 체제 전환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임. 반면, 이란 또한 주변국 미군 기지 대응 공격 속에 미국에 대응하며 현 지도부를 계승한 차기 정부가 대미 공세 수위 강도를 높이며 장기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하지만, 1개월 이상으로 현 양상이 지속되며 이란내 정권 계승과정에서 이란 국민의 시위 강경 진압 등 내부적 소요 강화 시, 미 지상군 투입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면 전쟁 양상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장기화하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별 기본 전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주 지속 가능성이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도 현 시점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1) 기본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주간 공세가 주요 분수령이 될 가운데, 이란내 체제 복원 속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2) 군사 충돌 장기화:

최초 4주간 미군과 이스라엘 등의 이란 거점 지속 타격에도 이란 체제 복원 후, 주요 시아파 벨트를 중심으로 주변국 중심에 있는 주요 미군 거점 대응 타격 지속하며 장기화하는 국면으로 전환

3) 미 지상군 투입:

이란 체제 전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반영되며 지상군 투입 후, 상호간 격한 공방 지속하나, 미국 의 지대로 체제 전환이 쉽지 않은 가운데, 상호간 출구 전략 모색

시나리오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전망

- 1) 기본 시나리오에 의하게 되면, 이란 타격 후, 4주간 미국과 동맹의 공세가 이어질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도 체제 복원 후, 상호간 휴전 협상의 실마리를 탐색 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단기 1주간 정도 통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겠으나, 그 이후 점차적으로 변동성 완화되며 달러인덱스의 하락과 원화 환율의 1,450원 하향이 예상. 이에 따라 최초 1주~2주 사이 1,470원대 까지를 고점으로 형성할 가능성
- 2) 4주 기간을 넘긴 시점에서도 군사 충돌 장기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충분한 시나리오로 보임. 이 경우, 이란은 군부를 중심으로 체제 복원하는 가운데, 주요 시아파 벨트를 중심으로 주변국과 미군 기지에 대한 결사 항전을 이어갈 수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도 체제 전복의 싹을 없애면서 하메네이 정권을 승계하는 체제 복구 속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회복 기조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커 보임. 현 전쟁 국면에 흐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로, 이 경우, 국제 유가는 90달러선을 돌파할 가능성 속에 원화 환율에 대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며 환율은 전고점 수준인 1,480원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3)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이면서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 이 시나리오는 미군이 직접 개입, 이란내 체제 전복을 도와 이란 국민들의 새로운 정권 창출까지를 상정해야 가능한 전략으로 보임. 이에 대해 미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즉각적으로 트럼프가 실행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4주간의 기간 동안 정세에 따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로 보임. 이 경우 3개월 이상 현 상황 지속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동 시점에서 원화 환율은 1,490원선 상향 터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